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choonwoo@uos.ac.kr)

벤처기업 및 그와 관련된 현상은 국내외의 사회경제 및 학계에서 매우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대상인 벤처기업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미흡하여, 연구대상 또는 지원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 결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발전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다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주요 선행연구문헌들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개념 및 특징들에 대해 내용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벤처기업의 개념적 본질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학술적·정책적 방향설정을 위한 과제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벤처기업 정의들은 조직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조직시스템상의 한두 가지 특정 하위 시스템의 특징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시스템 전체를 포괄하는 본질적인 측면을 볼 때, 벤처기업이란 '기업가적 조직자본(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을 창출·축적하는 신생기업체', 즉 창업자뿐 아니라 조직경영시스템 전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실천을 본질적 요건으로 하는 신생기업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벤처기업 경영현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경영학이론 및 조직이론과 앙트라프러뉴십이론을 결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벤처관련 정책 역시 기업가적 경영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Ⅰ. 서론

벤처기업은 국내외의 사회경제계와 학계에서 매우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체제를 겪는 과정에서 벤처기업과 그 관련 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어 범 사회국가차원에서의 육성정책이 실시되고 학술적 연구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경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관련 정책수립에 다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춘우, 1999; 2001). 벤처기업 관련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특히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주도로 실시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상으로 명시한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동 시행령이 발효된 이래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수가 1998년 12월에는 2000여개,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6000개 이상, 2002년 상반기에는 10,000개 이상이 등록되는 등 갑작스럽

논문접수일: 2003. 2 게재확정일: 2004. 8
* 익명의 두 분 심사자의 세심하고 건설적인 논문심사에 감사를 드린다.

게 많은 벤처기업들이 출현하게 된 것에 대해, 법제상에서 제시된 몇가지 요건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을 갖추면 벤처기업인가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성소미, 2001, p.25; 김병균, 2001).

이와 같이 학술적 연구측면에서 벤처기업의 경영현상을 설명·예측할 수 있는 이론의 부족문제나(Shoonhovan, Eisenhardt, and Lyman, 1990), 실무정책적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선정기준의 타당성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벤처기업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정의와 특징에 관한 국내외의 학문적·실무적 논의들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개념적 속성과 본질적인 특징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를 벤처기업 연구를 위한 이론개발과 지원정책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연구문헌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해 보고 이를 조직 시스템 관점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해 재조명해 봄으로써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I. 벤처기업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문헌 검토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속히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벤처기업 관련 연구들 중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문제제기정도에 그치고 있다(이장우, 1997; 이장우·장수덕, 1998; 김영배, 1998 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 발표대회). 그 이유는 학술적 연구에서 벤처라는 용어의 사용역사가 짧고,[1] 벤처에 대해 먼저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 실무계(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특히 산업정책적 입장)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관련 현상을 설명·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의 원론적이며 일차적인 과제로서 연구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김광웅, 1996). 연구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이 어떤 특성이나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연구대상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적·실무적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정의와 개념적 특징들을 취합하여 학술적 연구부문에서의 논의와 실무정책 부문에서의 논의들을 비교·검토하고, 그 공통된 본질적 측면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벤처연구의 세계적인 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및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학회에서 발간되는 「벤처경영 연구」의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논문들 중 벤처기업의 정의나 특징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된 것들과 그 외 주요 벤처관련 학술연구문헌이나 실무측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벤처기업에 관한 국내외 주요 학술 연구 및 실무

1) 외국, 특히 미국의 학위논문 목록(PQD)을 검색해 보면 Venture라는 용어는 1980년 이후 간혹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1990년 이후에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벤처기업 및 그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연구관심이 증대되어 80년대 중반 미국 경영학회에서는 앙트라프러뉴십 연구분과가 독립되었고, 학술지로서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이 1985년,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가 1987년, 그리고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이 1995년도에 창간되었다. 국내에서도 1998년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벤처경영연구」라는 학술지가 창간되었다(이춘우, 1999).

〈표 1〉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선행 논의들의 내용 정리

		학술 연구			실무 정책적 정의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벤처기업의 혁신 모험 기능 강조(앙트라프러뉴십 이론 관점)	Venture = Entrepreneur	리스크를 두려워 않는	모험기업	x	x	x
	조직성장단계 강조	New venture young, startup	x	젊은 기업 신생 기업	신생기업	창업후 5년미만	x
	규모강조	Small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 강조	High technology based	x	첨단 기술 기술집약적 기업	신기술 기술적 우월성	x	특허기술 신기술 지식집약
	연구개발 강조	Research based companies	연구개발집약형 디자인집약형지식 집약형	연구개발형 높은 R&D 투자율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은 기업	연구개발 투자율 3% 이상	연구개발 투자율 5% 이상
	산업유형 강조	컴퓨터, 통신 반도체 바이오	신생산업 유통서비스업 포함, 모든산업에 등장	새로운 시장 신생산업	x	x	IT, 반도체 바이오
	모범성 규범성 강조	x	우수 중소기업	성공기업 개혁적 경영 자율성 실패에 대한 관대	x	x	x
	경영노우하우 강조	x	x	고도의 경영노우하우	x	뛰어난 노우하우	x
	창업자의 특성 강조	x	왕성한 기업가 정신, 고도의 전문능력 강한 성장의욕 고학력자, 재능 대기업 중견기업으로부터 독립	왕성한 기업가 정신 기술창업인 능력발휘형 기업가	x	풍부한 기업가정신 높은성취욕	x
	산출성과(성장/수익) 강조	세수확대, 국가경쟁력, 고기능일자리 창출	고수익 급성장	고성장/성과 높은 기대이익	높은 수익 기대	높은 성장력	x
	사업의 위험성 강조	x	높은 위험성 상품의 독창성 모험적 사업	고위험	위험성 큼	x	x
	지배구조 강조	x	독자적 존재 사업의 독립성 독자적 기술	독자적 첨단기술 대기업계열사아님	독립적인 기반	독자성을 가진 지배당하지 않음	x
	벤처캐피탈과의 관계 강조	Venture capital backed	x	벤처캐피탈 회사 많이 활용	x	x	벤처캐피탈 투자 20% 이상

〈표 1〉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선행 논의들의 내용 정리(계속)

		학술 연구			실무 정책적 정의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벤처캐피탈 정의속에서의 벤처기업 정의	벤처캐피탈 자체의 본연적 속성 강조 (앙트라프러뉴십 이론 관점)	기업가적 활동의 촉매 역할	x	x	x	x	x
	투자대상 강조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포트폴리오	x	x	x	x	x
	벤처기업의 혁신 모험 기능 강조(앙트라프러뉴십 이론 관점)	기업가적 기업	x	x	x	x	x
	조직성장단계 강조	young 창업기업	x	발전단계 초기	x	x	x
	규모 강조	소규모	중소기업	소규모	x	중소기업	x
	기술강조	신기술, 새로운 기술적 지식	x	고도의 기술력 기술집약적 기업	x	고도의 기술력 전문적지식	x
	자금사정 강조	자금부족	x	자금부족	x	x	x
	연구개발 강조	연구개발 강한 기업	x	x	x	x	x
	산업유형 강조	PC 산업	x	x	x	창조적인 신사업	x
	모범성 규범성 강조	x	우수 중소기업	x	x	x	x
	창업자의 특성 강조 관점	소수의 핵심기술자	x	x	x	왕성한 기업가정신 높은성취욕	x
	산출성과(성장/수익) 강조 관점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 지역 국가경제 기여 높은 잠재력	x	x	x	x	x
	사업의 위험성 강조 관점	고위험성 불확실성		높은 위험성	x	x	x

주) x: 연구샘플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음.

적 정의들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우와 벤처캐피탈의 정의속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2]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이춘우, 2001), 이들 벤처기업 정의들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벤처기업의 혁신·모험 역할을 강조하거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측면을 강조하거나 조직의 성장단계나 기술적 측면, 관리적 행태, 사업의 성격이나 수익 및 성과의 성격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문헌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들은 진지하게 심층 분석을 하거나 어떠한 명확한 관점하에서 도출되었다기 보다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주제를 다루면서 벤처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의 정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학술적 실무적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2.1 학술 연구문헌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2.1.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정의에서의 벤처기업의 특성

미국의 선행연구문헌들에서는 벤처기업을 벤처(venture),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enss), 비즈니스 벤처(Business venture),[3] 기업가(entrepreneur), 기업가적 기업(entrepreneurial firm/entrepreneurial venture)(Robinson and Pearce, 1986), 고기술 기업(High Technology Business), 신기술기반 기업(New Technology-Based Firm), 모험적인 기업(Risky Business), 창업기업(Start-up company)(Gladstone, 1988),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Venture capital-backed company)(Sandberg & Hofer, 1987)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지칭하고 있다. 외국문헌에서는 엄격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장우, 1997; 이장우·장수덕, 1998; 홍성도, 1998)이 있지만, 벤처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문헌이나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및 「벤처경영연구」와 같은 국내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벤처기업의 본질적 속성이나 개념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을 언뜻 보면 다양한 듯 보이지만, 선행연구들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들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예: Carland, Hoy, and Carland, 1984; Dollinger, 1995)으로부터 구체적이며 제한적인 것(예: Schoonhoven *et al.*, 1990; Shrader & Simon, 1997)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벤처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 측면, 즉 혁신의 수행 또는 모험(위험) 감수라는 앙트라프러뉴십(entrepreneurship) 개념에 주안점을 둔다(예: venture=entrepreneur). 포괄적인 정의는 벤처기업의 특성으로 독창적인 기술적 혁신을 개발하고 시장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striving largely to develop and market original technological innovation) 또는 혁신적인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striving

2)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창업보육기관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종일(1998)은 신기술 벤처기업을 새로운 기술을 우월적 지위로 삼아 창업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높은 부가가치, 새로운 산업형성, 새로운 기술개발 등의 제반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송광선(2000)은 창업보육을 정의하면서 새로 창업하여 자생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창업보육자의 역할입장을 강조하여 벤처기업의 자생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3) 연구자에 따라서는 Venture company 또는 Venture Firm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to provide innovative technical service)과 같이 전략적인 지향성(Stuart & Abeti, 1987)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정의는 Carland, Hoy, and Carland(1984)의 '신제품 도입, 신생산 방식, 신시장 개척, 산업재조직 등의 행위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목표를 수익성과 성장성에 두고 혁신적 전략실행으로 특징지워지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정의와, Dollinger(1995)의 '창조와 혁신, 모험과 불확실성에의 도전으로 새로운 결합을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신생 소기업'을 들 수 있다.

반면, 후자는 특정 산업 내에 속한 신생기업들의 조직특성 중 일부를 부각시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예: venture=new technology-based firm). 제한적인 정의의 경우에는, 비록 연구자가 연구대상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new high technology venture, biotechnology venture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듯이(Deeds, Decarolis & Coombs, 1991) 특정의 기술적 산업의 벤처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Schoonhoven *et al.*(1990)은 자신의 연구범위를 반도체 산업의 신생조직으로 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범위에 반도체 산업에 포함되는 신생기업이 해당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을 강조하여 'new high technology venture'라는 용어 사용하거나, 독창적인 기술적 혁신을 개발하고 시장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또는 혁신적인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Stuart and Abeti, 1987)으로 정의하거나' 조직연령 및 규모를 강조하여 7년 미만의 1~25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정의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칭하는 정의들에서는 특히 조직성장단계론적 관점에서 정의될 때, 벤처기업은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신생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Chrisman *et al.*(1999)은 신생벤처란 그 발전단계에서 성숙된 사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업이라고 그 특징을 지적한다. 즉, 벤처기업은 Kazanjian(1988)의 성장단계론에서 제시된 안정화 단계(stability)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업이며, Stinchcombe(1965)이 주장한 신생성의 불리함(liabilities of newness)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태의 기업이다. 개척자적인 신생벤처(pioneering new venture)의 경우는 시장과 기회를 탐색하며 경쟁시장과 경쟁방법을 창조하여, 선제권을 장악하려는 성향(preemptive fashion)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수행하는 선두진입자로 설명하고 있다(Kerin, Varadarajan and Peterson, 1992; Schumpeter, 1934).

일본의 경우 벤처기업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1971년 清成·中村·平尾의 저서 「벤처비즈니스」이다(이윤보, 1999). 일본 연구문헌에서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의 정의는 中村秀一郎/清成忠男(1973)의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집약형 또는 디자인개발 집약적인 능력발휘형의 창조적 신규개발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은 소기업으로 출발하지만, 종래의 신규개발 소기업의 경우와 다른 것은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경영자 자신이 고도의 전문능력과 재능있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 있는 사업을 조직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고수익의 기업이다'라는 정의와 松田修一(1994)의 '벤처기업은 왕성한 의욕을 가진 리더가 이끄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생기업으로서 상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 사회성, 나아가 국제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즉 리스크를 느끼면서도 과감하게 도전하여 자기실현을 위

한 독립성, 이질성, 나아가 혁신성을 중시하고 장기적인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성장의욕이 강한 기업가가 이끄는 기업이다' 라는 정의를 들 수 있다.

일본 연구문헌에서도 역시 포괄적인 정의와 제한적인 정의가 공존한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문헌과 달리 일본의 연구들에서는 벤처기업을 연구개발집약형 기업, 디자인개발 집약형 기업, 지식집약적인 중소기업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신생산업뿐 아니라 기존산업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광근(1999)은 일본연구들에서의 벤처기업 정의의 공통점을 ① 기업규모의 특징면에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는 점, ② 기업전략/경영정책의 특징면에서 경영전략에 대한 비전이 확립되어 있고 특히 연구개발형/디자인 개발집약형 기업 등 지식 집약적인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찰렌지 정신과 행동력으로 독자적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 ③ 기업가/경영자의 특징면에서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이 풍부하고 창조성, 개성, 실행력이 뛰어나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시대감각과 사업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④ 생산기술의 특징면에서 신시장/신분야 개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생산기술은 기존기술과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⑤ 상품/제품의 특징면에서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소위 규모의 메리트가 작용하지 않는 분야를 목표로 독자성과 독창성을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척한다는 점, ⑥ 성장/수익의 특징면에서 벤처기업은 설립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교적 조기단계로부터 외부의 자금원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과 고수익을 달성하고 가능한한 조직에 주식공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등으로 정리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외국의 선행연구들보다 벤처기업을 정의내리는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장우(1997), 이장우·장수덕(1998), 홍성도(199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venture, venture business를 음역인 '벤처비즈니스'라고도 하고 의역인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 집약적 기업'이라고도 하며 직역에 가까운 '모험기업'이라고도 부르고 있다고 한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초기에 모험기업이라는 용어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기업이라는 용어가 주로 혼용되다가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왔으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통해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대표적인 정의는 이진주(1985; 1986)의 정의이며,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그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이진주(1985; 1986)는 벤처를 모험기업이라고 번역하면서 이를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시 기대이익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특징으로 i) 소수의 기술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 ii) 높은 위험 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기업, iii)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려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이란 점 등을 제시한다.[4)]

4) 이와 같은 정의는 실무측의 정의에도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기술개발(주)는 '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의 효과분석(1986)'이라는 보고서에서 모험기업을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지만 성공시 기대수익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홍성도, 1998 재인용).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벤처연구를 열어 놓은 이장우(1997) 역시 이진주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으로서, 소수의 기술창업자가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 많으며,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특징과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자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 외 이장우·이현숙(2000), 김영배·하성욱(2000), 권기대·이상환(2003) 등의 연구들도 종래의 이진주(1986), 이장우(1997)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들은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위험수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따르는 실패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한다. 이들은 벤처기업이 한마디로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2.1.2 벤처캐피탈의 정의 속에서 벤처기업의 특징

역사적으로 볼 때,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호 밀접하다. 19세기 이전에는 모험자본과 모험가가 구분되지 않다가 19세기에 Thomas A. Edison과 같은 자본이 없는 발명가들과 그들의 발명품 또는 신기술의 상품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공급했던 캐피탈리스트들이 분리되면서 Venture capital이란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Hisrich and Peters, 1995).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벤처'가 '벤처캐피탈'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었을 만큼,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보다 벤처캐피탈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먼저 형성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보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들이 앞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문헌들에서 나타난 벤처캐피탈의 정의 속에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의 특성을 알 수 있다.[5] 이들 연구에서 언급된 벤처기업들은 공히 벤처캐피탈과의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투자-피투자 관계가 전제되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벤처캐피탈의 고유한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이 언급된다. 이때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대상의 기업들(portfolio companies)(Bygrave, 1987)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벤처캐피탈에서 논의되는 벤처기업의 특징은 특히 투자대상의 속성으로서 '고위험이지만 고성과가 기대 된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미국문헌에서 벤처캐피탈의 정의에는 벤처캐피탈이 연구개발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 기업가적 기업(entrepreneurial companies)에 투자되는 자금 등과 같이 벤처캐피탈 자금의 투자대상의 특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이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역할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경제성장과 재생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근본적 가치 창출을 한다는 점

5) 벤처캐피탈의 정의 속에 벤처기업의 특징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Hisrich and Peters(1995: p.267)는 Venture capital을 전문적 equity pool에 투자되는 자금이라고 정의한다.

(Bygrave and Timmons, 1992), 상당한 경제적 공헌을 할 잠재력을 가진 젊은(young) 기업이나, 고속성장 기업 또는 그 잠재력을 보이는 신생기업에게 투자한다는 점(Bygrave, 1987), 창업기업(start-up company)의 자본 소스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Gladstone, 1988; Maier II & Walker, 1987) 등이 그것이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본질적으로 매출액과 자산이 매우 적어서 전통적인 자금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제약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일하고 일차적인 소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Maier & Walker, 1987), 전통적인 자금시장이 투자를 회피하는 이유는 사업이 기존의 제도권내의 금융기관의 관행상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커다란 위험성을 갖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이 커다란 위험성을 수용하는 이유는 벤처사업의 기대성과가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extraordinary returns)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벤처캐피탈이(기업가들의) 기업가적 활동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에서 촉매적 역할(catalistic role)을 한다는 논의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본연적으로 앙트라프러뉴십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일본의 벤처캐피탈에 관한 연구문헌들은 영문화되거나 국문화된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역시 벤처기업을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기업으로 특징지운다. 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일본 벤처캐피탈의 투자성향은 매우 보수적이며, 그 투자대상을 벤처만으로 명시하기보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벤처를 중소기업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본 벤처캐피탈의 정의 속에는 벤처기업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수'하다는 규범적이며 모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개념내에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보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이장우 · 이현숙, 2000),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의 속에 벤처기업의 특징이나 속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벤처기업보다, 벤처캐피탈에 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먼저 다루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연구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보다 오히려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벤처캐피탈 정의 속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특징들을 보면, 외국연구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두어 투자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의 특징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문수(1987), 장연주(1997)는 벤처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아직 역사가 짧고 경영기반이 약하다는 점, 일반금융기관에서 융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 성장이 기대되는 발전단계 초기의 기업이라는 점 등 투자대상이 갖는 고위험성 측면과 고성과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문헌은 미국문헌의 경우와 달리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기업가적 활동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촉진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정의들 속에서 강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벤처기업이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 신생기업이며 이들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이 벤처캐피탈의 고유 역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벤처기업 자체의 조직 특성이나 기업가정신 실천의 역할보다도 투자대상관점에서의 벤처사업의 성격과 성과 측면이다. 즉 투자대상으로서의 내포

된 벤처사업의 위험성과 그 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기대성과로서 고수익·고성과라는 높은 잠재력 속성에 초점을 둔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과 자산이 매우 적다는 점은 벤처기업이 신생조직이라는 점을 나타내 준다. 즉 신생조직의 사업이므로 기대수익률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새로운 기업체를 의미한다.

2.2 벤처기업에 대한 실무 측의 정의

실무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에서 나타난 미국, 일본, 한국의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6]

미국의 '중소기업 투자법'에서는 벤처기업을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독립적인 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이라고 정하고 있다(홍성도, 1998). OECD에서는 '연구개발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이라고 정하고 있다(홍성도, 1998).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을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라고 지칭하는데(고중선, 1991; 박경렬, 1997),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이라고 정하고 있다(이윤보, 1999; 홍성도, 1998; 1997 한미 벤처포럼자료; 장현국, 1999 재인용). 일본증권협회는 벤처기업을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창조적인 신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 즉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창업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서 신규사업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타무라 요시노리/히라타 고우이치, 1995; 이윤보, 1999 재인용). 또한 일본 중소기업청(1995)은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①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이 풍부하고 성취의욕이 높을 것 ② 독자성을 가진 뛰어난 기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③ 높은 성장력 또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④ 미상장의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실질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다(이윤보, 1999).[7]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1986)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는 용어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1986)에 '신기술사업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중선, 1991). 한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유가증권 규정에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나 창업투자회사가 회사지분의 10%이상을 투자

6) 대만에서는 벤처기업을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촉진산업조례 18조에 근거해 2년마다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김병균, 2001, p.272). 인도에서는 벤처라는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특별히 소프트웨어 산업(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며,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하이테크 기업(high-tech companies) 또는 창업기업(strat-up compani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김병균, 2001, p.282). 이스라엘에서 다소 특이한 점은 창업보육 등 신기술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한 창업기업으로서 수출 잠재제품의 개발기업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벤처협회(Israel Venture Association)는 벤처캐피탈이나 기타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하이테크 또는 창업기업이라고 하고 있다.

7) 이외에도 일본의 실무측의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금융공고(1998)는 "벤처기업은 신사업의 전개형태를 말한다. 신사업으로서 신규성/혁신성을 나타내고 전개형태에 대해서는 신규개업형과 다각화 사업전환형 타입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연구개발형기업육성센타는 벤처기업을 "① 급성장 기업 ② 고수익 기업 ③ 연구개발 중시 기업 ④ 대기업 출자 비율 25% 이하 기업 ⑤ 신상품 비율이 높은 기업 ⑥ 창업역사 10년이내 기업 ⑦ 주식 상장 지향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통상 산업성의 벤처비지니스 연구회는 독자적인 새롭고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경영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자주독립의 중소기업으로 설명한다.

한 회사로 정의했다(이장우, 1997). 1997년에는 이를 공식화하는 법적 제도, 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1997)'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② 최근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④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8] 영위하는 기업의 네 가지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하였다(중소기업청 자료, 1998).[9]

이에 따라 1998년 5월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 작업을 통해 지정된 벤처기업들의 수는 1998년 12월말 현재 2,042개사, 1999년 12월 말 현재에는 4,934개사, 2000년 12월 말 현재에는 8,798개사, 2001년 12월 말 현재 11,392개사(중소기업청 발표, 2002.1.17), 2002년 8,778개사, 2003년 7,702개사, 2004년말 7,967개사(중소기업청 자료 2005.2)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사)벤처기업협회'가 설립되어 회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자료, 1997, 11). 97년 11월 현재 한국 벤처기업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수는 368개사이며, 1998년 12월말 현재 약 790개사 1999년 6월 말 현재 약 890개사, 2002년 7월말 현재 1214개사이다.

2.3 요점정리와 내용분석 필요성의 인식

국내외의 학술적 연구문헌들에서 벤처기업의 특징과 개념을 논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벤처기업의 정의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벤처캐피탈을 정의하면서 벤처기업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이다. 전자에는 앙트라프러뉴십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포괄적인 정의방식과 신기술이나 소규모 또는 신생성과 같은 조직상의 일부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제한적인 정의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이라는 점과 투자대상의 위험성과 기대성과를 부각시켜 고성장 기업, 고위험 또는 고성과 창출사업

8)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기업(공업발전법),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정보화 촉진 기본법), 우수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정보화 촉진 기본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영상산업 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영상 진흥 기본법),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기술개발 촉진법),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기술개발 촉진법), 중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9) 중소기업청은 1998년 7월 벤처기업의 법적 자격기준 중 '매출액 대비 특허관련 매출비중 50%로부터 20%'로 변경하였고, '사업연도의 6개월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했던 것을 '3개월'로 바꾸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2002년에 다시 종래 세번째 네번째 요건이 합쳐지고 새로운 네 번째 조건으로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으로 개정되었다.

을 행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연구문헌에서의 벤처 정의는 벤처기업의 혁신·모험·도전과 같은 앙트라프러뉴십 역할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경우와 특정 산업에 속한 신생기업의 조직특성 중 일부를 부각시켜 강조하는 제한적인 경우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 연구자의 연구샘플로 특정산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창업자 개인적 특성으로서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벤처기업의 정의나 특징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일본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벤처기업의 정의를 보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연구문헌들은 미국의 연구문헌보다 좀 더 다양한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문헌이나 일본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책 실무 측에서 공히 창업자의 개인적 특징으로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미국의 연구문헌에서와는 달리 일본연구들에서의 특징은 벤처기업을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측면의 특성을 통해 정의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예: 성공기업, 급성장을 이룩한 기업 = 벤처기업).

국내연구들에서의 벤처정의의 특징으로는 일본연구문헌에서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한다는 점과 '고위험 고성과'라는 벤처사업의 성격을 강조한 벤처캐피탈 관점에서의 벤처기업 정의를 혼합하고 있다는 점, 기술집약성과 같은 기술중심의 구체적이고 제한된 측면의 요소로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영자 측면에서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점과 벤처기업을 상당히 규범적인 관점에서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으로 기술하는 경향은 일본연구문헌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이진주(1984), 이장우(1997)에서의 벤처기업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상으로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노현섭·최상렬(2000)의 정의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즉 벤처기업은 "① 개혁적 경영으로 기존기업에 도전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업특성을 지니면서 산업사회 안에 합리적 존립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② 개성적 전문기업으로서 수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려는 시장지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③ 고도의 전문지식을 집약하고 연구개발과 디자인력을 기초로 창조성을 발휘하는 지식 집약적 경영을 하고 있으며 ④ 창조성을 풍부하게 지닌 전문가 집단으로 인적경영자원이 축적되어 있고 ⑤ 개인이 충분히 창조력을 발휘하는 동태적 경영조직을 지니고 있으며, ⑥ 외부경제 의존형의 기업으로서 기술 및 자원, 인력 판매의 아웃소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분업활용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상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연구의 벤처정의들이 우리나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벤처기업에 관한 정의들과 유사한 스타일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들이 많은 부분 일본 연구들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10]

이처럼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국내의 연구경향은 벤

10) 이에 대해 한정화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는 1970년대 일본의 키요타리 타다오(清成忠男)가 벤처비즈니스라고 한 것을 이진주가 모험기업이라고 번역하면서 도입되어, 그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카테고리를 정해 신생성과 기술집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미로 벤처기업을 정의내리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고 코멘트했다(2002 한국전략경영학회 하계발표대회 코멘트).

처기업의 정의가 연구자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이나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의 논의도 출현시켰다. 예를 들어 김영배·하성욱(2000)은 벤처기업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11] 그 결과 벤처에 대한 지칭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연구자마다 각기 사용하여 혼란스러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정의 내용에서의 용어들간의 상호관계 및 연관성을 체계화시키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내용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질적인 분석기업을 활용하는 분석적인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III. 내용분석기법을 이용한 벤처기업 정의의 종합적 재검토

본 연구에서는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및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학회에서 발간되는 「벤처경영 연구」의 창간호부터 2004년 1월까지의 논문들과 주요 벤처 학술 연구문헌, 그리고 실무 측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의 정의와 특성들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 내용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3.1 내용분석의 절차와 방법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문서화되거나 구두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나 메시지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누가 하든 동일하면서도 타당한 메시지의 진의를 추론하는 조사기법이다(Kippendorff, 1980, 21; 김광웅, 1996). 내용분석기법은 질적인 연구방법의 하나로 연구대상에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맥락(context)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Insch, Moore & Murphy, 1997).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의 대상샘플은 앞서 살펴본 학술적 연구들과 실무 측에서 다루어진 벤처기업 정의에 관한 62개의 문장들이다. 본 연구는 Glaser & Strauss(1967)과 Miles & Huberman(1984)의 3단계 내용분석의 절차를 따랐다.

1단계는 분석대상 자료를 의미분석단위(thought unit)로 나누는 단계이다. 내용분석에 있어서 분석단위는 단어(word), 문구(phrase)로부터 문장(complete sentence), 몇 개의 문장(several sentence) 등이 동시에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분석대상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의 문장이나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및 문구를 분석단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자의 연구조교들(분석자)로 하여금 선행연구문헌에서 나타난 벤처기업 정의에 관한 문장속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나 문구를 세도록 하였다. 그 결과 365개의 의미분석단위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추출된 분석단위 어휘나 문구의 각각을 인덱스카드에 기록하였다.

2단계는 범주화 또는 분류(categorization)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모든 분석단위를 분석자들로 하

11) 김영배는 벤처의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에 대해 보는 부처의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개발 측면에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두고, 노동부는 실업문제해소기능에 강조점을 둔다(한국전략경영학회 1998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내용). 또한 벤처가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정의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벤처캐피탈회사는 자본공급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고수익성 측면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고 한다(고정석 일신창업투자 사장, 한국전략경영학회 1998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내용). 이장우(1997)는 벤처기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금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로 묶도록 하고 동의도가 높은 경우를 하나의 범주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3명의 분석자를 이용하였으며, 3명 중 2명이 일치하는 경우를 범주화하였다. 카테고리는 귀납적으로 추후 명명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연역적으로 이론적 모델에 기초한 범주를 기본적인 카테고리화의 가이드로 상정하여 범주화를 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조직시스템 관점의 하위시스템 요소들을 카테고리의 기본범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조직시스템 관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에 관한 선행 학술연구문헌이나 실무측 논의들이 벤처기업 자체 및 관련 요인들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정의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특성들이 상호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욱 핵심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데 벤처기업을 조직 전체적인 측면과 세부적인 내부요소 측면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과 이론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도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조직이므로 벤처기업의 특성들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벤처기업 고유의 특성들간의 상호관계와 벤처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과 다른 특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카테고리로 조직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인 Kast and Rosenweigh(1979)의 조직시스템 모델과 조직시스템을 좀 더 기업경영시스템에 가깝도록 응용한 신유근(1996)의 경영시스템모델[12]을 이용하여, 목표가치·전략 하위 시스템, 사회심리적 하위시스템, 관리적 하위시스템, 구조적 하위시스템, 기술적 하위시스템의 측면과 상위시스템으로서 산업(시장) 측면, 그리고 개방시스템 측면을 카테고리 범주로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에 있어서 3단계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결과의 해석과 추론을 행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p-statistics (Light, 1971)을 사용해 평가자간 동의도를 계산하였다. 이 기법은 모든(3명) 평가자들이 동의하는 인덱스 카드의 숫자를 카드의 전체숫자로 나누는 것이다.[13] 그 결과 전반적인 평가자간 동의도는 0.75이었다. 선행연구문헌들에서 3명의 분석자를 이용한 내용분석의 경우 동의율이 0.6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동의도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높은 수준의 평가자간 동의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카테고리가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내용분석의 결과와 해석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벤처기업의 정의 및 특성들을 내용분석기법을 이용해 조직시스템 관점의 하위시스템 범주로 재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상위시스템 측면: 상위시스템은 시스템이 하나의 하위시스템으로서 포함되어 기능하고 있는 시스템 외부의 또 다른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내용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상위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단어 및 어구들은 신생산

12) 신유근(1996)은 시스템 관점에서 경영시스템을 투입-전환-산출의 과정을 거친다고 전제하고, 특히 전환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 경영전략, 경영조직, 기능관리, 사람관리, 거시경영, 경영주체로 구분하였다.

13) 예를 들어 기술적 시스템 카테고리 내에 3명의 평가자가 분류해 놓은 전체 인덱스 카드 중 3명의 평가자가 모두 일치하여 분류한 인덱스 카드 숫자를 나누는 것이다.

〈표 2〉 조직시스템 요소 카테고리별 키워드와 동의도

카테고리	키워드	동의도
상위시스템	신생산업, 신흥시장, 신시장	0.72
사회 심리적 하위 시스템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소유자	0.75
목표 가치 전략 하위 시스템	신기술의 상업화, 신시장 창출 추구, 창조, 혁신, 도전	0.67
기술적 하위시스템	신기술, 하이테크 기술	0.83
구조적 하위 시스템	중소규모, 신생창업단계, 독자적 소유지배구조	0.87
관리적 하위 시스템	연구개발 지향	0.66
산출측면	고위험 고성과, 고성장 경제성장 공헌 사회경제 산업의 변화 촉진	0.70
개방시스템 측면	벤처캐피탈과의 지원 관계	0.76

업, 신흥시장, 신시장으로서 분석자들간의 동의율은 0.72이다. 벤처기업이 속한 상위시스템인 시장 또는 산업의 특성은 신생산업 또는 신흥시장이다. 이전에 다른 기업들에 의해 개척된 적이 없는(Tasi *et al.*, 1991) 신흥시장(김영우, 1983; 손병문, 1984; 고중선, 1991)이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박경민, 1997). 미국의 연구문헌에서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반도체 산업(Schoonhovan *et al.*, 1990), 컴퓨터·통신장비 제조산업(Shrader and Simon, 1997; McDougall and Robinson, 1990),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Sapienza and Gupta, 1994), 분석기구나 의료장비 등 첨단장비 제조산업(Stearns, 1996), 소프트웨어나 의료기기 산업(Bachher and Guild, 1996)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14] 그러나 국내 연구문헌에서는 신흥시장 또는 신규시장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업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단 우리나라의 (사)벤처기업협회나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업체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 등의 산업들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은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개척자로서의 속성을 가진 기업(pioneer)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사회·심리적 하위시스템 측면: 사회·심리적 하위 시스템이란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다. 내용분석결과 사회·심리적 하위시스템으로 분류된 키워드들은 기업가정신이다(동의율 0.75). 벤처기업의 창업자나 창업멤버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거나 적어도 발휘할 것으로 기

14) Stearns(1996)은 산업표준분류코드에 따라 분석기구나 의료장비등의 첨단장비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Kazanjian and Drazin(1990)은 technology-based firms를 전자 컴퓨터 산업들에 있어 기술이 기반이 되는 105개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 West Ⅲ and Meyer(1996)은 산업표준 분류코드에서 컴퓨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소프트웨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이장우·장수덕, 1999).

대된다. 이에 대해 국내 학술연구문헌들과 일본 학술문헌 및 실무 측이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김영우, 1983),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모험기업가'(나중덕, 1984),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경영자'(손병문, 1984),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 기업인'(이진주, 1986), '능력발휘형의 기업가정신'(신재정 등, 1994), '기업가정신을 발휘'(고중선, 1991)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 학술 연구문헌이나 국내 실무 측의 논의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학술연구문헌은 벤처기업을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 탄생기 단계의 의미로 기업가(entrepreneur)와 동의어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내 실무 측에서는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기업가에 관한 점을 완전히 간과했다고 생각된다.

(3) 목표가치·전략 하위시스템: 목표가치·전략 하위시스템이란 시스템이 추구하는 바에 관한 체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신유근(1996)의 경영전략 하위시스템과 유사하다. 내용분석결과 목표가치 하위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단어 및 어구들은 신기술의 상업화, 신시장 창출 추구, 창조, 혁신, 도전 등이다(동의율 0.67).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나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략은 이전에 개척한 적이 없는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Tasi *et al.*, 1991),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개발전략,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기업화 전략(나중덕, 1984),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전략,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전략(이진주, 1986), 기존기업이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수요를 개발·창조하는 전략(강문수, 1987) 들이다. 벤처기업은 기술혁신과 아이디어개발이나,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 사업화하려는 동기(Bollinger *et al.*, 1983)에 의해 움직이며, 어디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시장과 기회의 선제적 탐색(Chrisman *et al.*, 1999)을 한다. 이를 학술 연구문헌상에서는 벤처기업의 특징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실무 측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기술적 하위시스템 측면: 선행연구 문헌이나 실무 측에서 논의된 또 하나의 벤처기업의 중요한 개념적 특징은 기술적 하위 시스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적 하위시스템은 시스템이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나 절차 또는 노우하우를 의미한다. 내용분석결과 기술적 하위시스템으로 분류되는 핵심 단어 및 어구들은 신기술이다(동의율 0.83). 벤처기업은 위험이 큰(큰 위험성을 내포한) 첨단기술(김영우, 1983), 독자적인 첨단기술(손병문, 1984), 신기술 또는 그 아이디어,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특허기술, 고도의 기술(고중선, 1991; 강문수, 1987; 나중덕, 1984; 이진주, 1986)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무 측에서 볼 때에도 미국의 중소기업 투자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채택하는 기술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아이디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1997)에서는 '특허 또는 실용실안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의 한 가지 요건으

로 명시하여 특허기술로 객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외 학술연구문헌상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 학술연구문헌에서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바이오테크 등 구체적으로 첨단기술의 산업을 명시하여 연구샘플로 삼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연구들에서의 특이한 점은 공학적 기술이 아닌 '경영의 노우하우(손병문, 1984; 강문수, 1987; 고중선, 1991)'도 기술적 요인으로 일부연구자들이 강조하기도 한다.

(5) 구조적 하위 시스템 측면: 구조적 하위시스템이란 시스템이 내부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과 사람들의 배열상태를 의미한다. 내용분석결과 구조적 하위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단어 및 어구들은 중소규모, 신생창업단계, 독자성과 같은 것들이었다(동의율 0.87).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은 조직연령 측면, 조직규모 측면, 성장단계 측면, 지배구조 측면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조직연령측면에서 볼 때, 선행연구 문헌들에서 나타난 벤처기업은 창업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기업이다. 이를 국내외의 연구문헌에서는 젊은 기업(young)(Gladstone, 1988; 손병문, 1994), 신생기업(강문수, 1987; 미 중소기업투자법), 신조직(new organization)(Schoonhovan *et al.*, 1990)이라고도 한다. 국외 학술 연구문헌에서는 막연히 young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밝혀 8년이하의 회사(Shrader & Simon, 1997), 평균4년인 회사(Sapienza & Gupta, 1994), 7년인 회사(Stuart & Abeti, 1987)로 연구샘플의 범위로 정의내리기도 하며, 일본 중소기업법에서는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15] 그러나 어떠한 논리적 기준에 의해 구체적인 조직연령을 설정했는지 선행문헌들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조직연령까지가 젊은 기업인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국내 학계나 실무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벤처기업들 중에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의 시기에 창업한 회사들도 다수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조직규모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나중덕, 1984; 손병문, 1984; 이진주, 1986; 고중선, 1991; 이장우, 1997; 일본 중소기업법)이라는 점에 연구자들간에 상당한 견해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원수인지 자산규모인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몇 명까지인지,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별로 이에 관한 기준도 각기 다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15) 벤처기업의 연구샘플로서 Cooper, Mitchell and Vesper(1996)은 NFIB(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Data)에 수록된 신생기업을 연구대상표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Franquesa and Cooper(1996)은 NBA(New Business in America data-base)에 수록된 2994개사 회사 들 중에서 창업한지 17개월 이내 평균 11개월된 회사(857개사)를 연구대상표본으로 하였다(이장우 · 장수덕, 1999 참조).

③ 조직의 성장단계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은 성숙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업이다(Chrisman *et al.*, 1999). 벤처기업은 경영기반이 취약하고(강문수, 1987), 신생성의 불리함(Chrisman *et al.*, 1999)을 갖고 있는 단계의 조직이다.

④ 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은 기존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기업에 부속된 별개의 사업부나 계열회사가 아닌 자본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체(Bollinger *et al.*, 1983)로서 특히 일본연구들이나 일부 국내연구들에서 벤처기업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도 한동안 대기업의 사내벤처로부터 분사한 기업은 벤처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6) 관리적 하위 시스템 측면: 관리적 하위시스템은 조직의 관리운영방식을 말한다. 내용분석결과 관리적 하위시스템으로 분류된 키워드는 연구개발지향성과 혁신지향적이며 위험감수적 조직운영방식 등이다(동의율 0.66). 벤처기업은 신제품 출시, 신생산방식, 신시장 개척, 산업재조직(Carland, Hoy and Carland, 1984) 등의 혁신지향적 행태를 보이며, 신기술(첨단기술) 또는 신제품개발(신재정 등, 1994)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역점을 둔다(Cooper, 1971; 1981). '위험이 큰 첨단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김영우, 1983)하거나 '신사업의 창조'(윤주섭, 1987), '신시장의 개척'(신재정 등, 1994; 고중선, 1991; 손병문, 1984) 등과 같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내포된 미지의 영역에 과감히 도전(신재정 등, 1994)한다. 실무 측에서도 혁신지향적 조직운영방식을 벤처기업의 한 특징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업(일본 중소기업법), 최근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1997) 등을 벤처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벤처특별법의 벤처기준은 일본연구들의 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7) 산출측면: 내용분석결과 성과 측면으로 분류된 단어 및 어구의 키워드는 고위험 고성과나 고성장, 경제성장 등이다(동의율 0.70). 산출측면에서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아이템)의 속성측면과 사회경제적 공헌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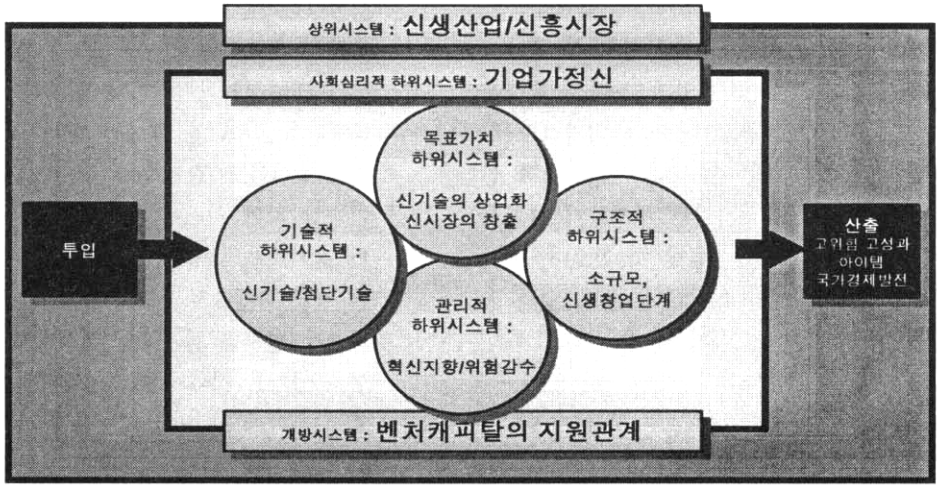
① 사업아이템의 성격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시 수익이 매우 높은 사업, 이른 바 고위험 고성과(high risk and high return)(이장우, 1997; 박경민, 1997)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벤처캐피탈을 통한 벤처기업의 특성들에 관한 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내 연구문헌들 중에는 '고위험 고성과의 사업'을 벤처기업의 특성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벤처캐피탈리스트라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벤처 특성을 다른 조직특성들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이 다루는 사업아이

템의 속성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김영우, 1983; 고중선, 1991),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김영우, 1983; 나중덕, 1984), 성공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김영우, 1983), 투자위험부담이 큰 사업(강문수, 1987), 위험부담이 높으나 성공시 기대이익이 큰 사업(이진주, 1986; 나중덕, 1984)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많은 경우 조기에 사멸하지만, 생존하여 성장하게 될 경우 급속하게 고도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의 고속성장 잠재력을 보이거나(강문수, 1987; Gladstone, 1988), 성장이 기대되거나(Coutarell, 1995), 성장성·수익성이 높다(나중덕, 1984; Carland *et al.*, 1984).

② 사회경제적 공헌효과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은 조직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고성과를 창출한다. 벤처기업은 국가경제측면에서 수출·고용·세금·연구개발·혁신 등의 부문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경제성장, 고용창출, 사회적 혁신에도 상당한 공헌한다(Bollinger *et al.*, 1983; Timmons & Bygrave, 1986; Gladstone, 1988; Vesper, 1984; Bygrave, 1987; Preece *et al.*, 1999).

(8) 개방시스템 측면: 내용분석결과 개방시스템으로 분류된 단어 및 어구는 벤처캐피탈이었다(동의율 0.76). 벤처기업이 다른 일반기업과 다른 특징의 하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회사'(Gladstone, 1988; 윤주섭, 1987; 강문수, 1987; 신재정 등 1994),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회사'(venture capital backed)(Cable & Shane, 1997; Sandberg and Hofer, 1987; Almeida and Bloodgood, 1996; Davila *et al.* 2004), '벤처캐피탈과의 관련성 높은 회

〈그림 1〉 경영시스템 모형에 입각한 벤처기업의 특성들간의 상호 관련성



사'(Cooper, 1971; Sapienza & Gupta, 1994)라는 점이다. 실무 측의 논의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창업투자회사가 회사 지분의 10%이상을 투자한 회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199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1997)으로 보아 벤처캐피탈의 지원관계를 맺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직시스템 모형을 활용한 내용분석결과를 경영시스템 모형으로 요약하여 도시하면 앞의 〈그림 1〉과 같다.

3.3 각 하위시스템 특성의 벤처기업 고유성에 대한 평가

내용분석에 의해 하위조직시스템 별로 분류된 벤처기업 특징들이 과연 벤처기업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일반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와 비교·검토해 고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벤처기업의 특징들이 벤처기업만의 특유의 속성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만의 본질적인 속성을 찾아내어 벤처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먼저 벤처기업의 상위시스템인 산업(시장) 시스템은 신생산업, 신흥시장으로 집약된다. 신흥시장이란 이전에 개척한 적이 없는 시장으로서 수요의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모험성)성이 매우 크다. 신생산업이나 신흥시장은 전에 없던 획기적인 제품·서비스의 출현이나 비즈니스 방식에 의해 출현하는 바, 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질서나 산업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나 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생산업을 일으키면서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벤처기업은 신생산업과 개념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신생산업이라는 상위시스템의 특징은 벤처기업 고유 속성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② 목표가치·전략 하위 시스템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특징은 신기술의 상업화와 신시장의 개척을 전략적 목표로서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신기술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점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및 대기업도 신기술의 상업화나 해외시장이나 틈새시장의 개척과 같은 신시장 개척을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의 상업화전략이나 신시장 개척이라는 특징만을 놓고 볼 때에는 벤처기업만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기술적 하위 시스템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논의된다. 이것은 국내외의 학술적 연구나 실무측의 논의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상의 벤처기업 요건에

는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만을 놓고 보면, 벤처기업만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첨단 신기술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내용분석결과 관리적 하위 시스템 측면에서 특징 지워진 벤처기업은 혁신지향적이며 위험감수적인 관리방식을 보인다. 그 구체적인 특성이 연구개발활동이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집약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벤처기업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인력 비율이 20% 이상이고 세계적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상위급에 속한다는 점, 기술혁신으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표준을 주도해 간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은 대기업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인 것이다.

⑤ 선행연구문헌들내에 구조적 하위 시스템 측면으로 특징 지워진 벤처기업은 소규모이며, 창업단계의 신생기업이다. 지배구조면에서는 기존 대기업으로부터 창출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독자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벤처기업은 통상적으로 창업기업으로서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규모이거나 창업단계의 신생기업으로서의 특징은 일반적인 중소 창업기업도 갖는 속성이므로 이 또한 벤처만의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규모만으로는 벤처기업을 특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Shepherd & Crouch, 1995).

⑥ 사회심리적 하위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은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자 및 창업멤버들로 구성된다. 국내 학술적 연구문헌들과 일본의 실무적·학술적 연구들은 경영자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규범적 차원에서 매우 강조한다. 벤처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은 벤처기업과 매우 밀접하고 논리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 고유의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창업가들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대기업 경영자에게도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벤처기업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⑦ 개방시스템으로서의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과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 관계를 맺는다. 현실에서는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역할과 달리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대해 위험공유의 정신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캐피탈과의 연계 및 그 가능성은 다른 일반기업들과 구분되는 벤처기업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이 산업경제내의 기업가의 탄생성장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서정해·이춘우·이장우, 2003).

⑧ 산출 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은 신제품/신서비스를 출시하므로 실패하여 도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경

제의 재활력화,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혁신에까지 공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위험성은 벤처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고성과 및 고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에의 공헌 등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벤처기업만의 고유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각 하위 시스템 요소의 특성을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관련하여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벤처기업만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들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명칭이 저마다 다른 이유를 조직시스템 관점에서 유추해 보면, 연구자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벤처기업의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의 특징 중 어느 한 측면만을, 또는 두세 가지 측면만을 부각시켜 지칭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① 구조적 하위시스템 측면의 신생 창업단계라는 점을 강조하여 Start-up company (Gladstone, 1988; Cable & Shane, 1997; Tasi *et al.*, 1991), New venture(Schoonhoven *et al.*, 1990; Shrader & Simon, 1997)라고 하고, ② 성과측면을 강조하여 High growth new firm(Tasi *et al.*, 1991)으로 부르기도 하며, ③ 기술측면을 강조하여 High tech firm(McDougall & Robinson, 1990; Stearns, 1996), Technology-based firm(Kazanjian & Drazin, 1990; Bachher & Guild, 1996; West & Meyer, 1996),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신재정 등, 1994; 박민규, 199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사업자(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라고도 한다. ④ 기술과 관리적 행태를 동시에 강조하여 기술집약형, 연구개발형기업(강문수, 1987; 일본 중소기업법), 기술지향적 기업(김갑수, 1982)이라고도 하고, ⑤ 혁신성 및 사업의 성격을 강조하여 모험기업(나중덕, 1984; 손병문,1984; 이진주1986; 신재정 등, 1994; 이진주·한종희, 1993; 조형래, 1995; 백경래, 1996; 박상문,1997; 김홍경, 1990), 벤처기업(강문수, 1987; 이장우, 1997)으로 부르기도 하며, ⑥ 기업가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Entrepreneur(Cable & Shane, 1997), Entrepreneurial firm(Robinson and Pearce, 1986)이라고 한다.

이처럼 벤처기업 시스템의 일부특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용어로 벤처기업을 지칭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부 하위시스템의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어느 한 측면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강조하는 제한된 성격을 갖고 있고 벤처기업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핵심적 특성은 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각 하위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을 포괄하여 관통할 수 있는 개념적 용어(terminology)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 상호관계가 시스템 관점속에서 정리된 신흥시장·신기술·혁신적·위험감수적·신시장·높은 위험성·고수익·신시장의 개척·벤처캐피탈과의 지원관계 등과 같은 하위시스템 카테고리들의 키워드들이 상호 유기적인 전체적 구성(configuration)을 이루고 있다는 개념적 용어로 본 연구는 '기업가적 조직자본(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하위 시스템들의 키워드들이 앙트라프러뉴십 연구분야에서 대표적인 앙트라프러뉴십의 정의와 많은 부분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시장·신기술·혁신적·위험감수적·신시장·높은 위험성·신시장의 개척과 같은 하위시

〈표 3〉 각 하위시스템 특성의 벤처기업 고유성에 대한 평가

특성	벤처기업	일반 중소기업	일반 대기업
상위시스템: 신생산업, 신흥시장	◎	-	-
사회심리적 경영주체 하위시스템: 왕성한 기업가정신	◎	◎	-
목표 가치 전략 하위 시스템: 신기술의 상업화, 신시장 창출추구	◎	△	△
기술적 하위 시스템: 신기술	◎	△	△
구조적 하위 시스템: 소규모, 신생, 독자적	◎	◎	-
관리적 하위 시스템: 연구개발 지향	◎	△	△
산출 측면: 고위험, 고성과, 경제성장 공헌, 산업구조변화	◎	△	△
개방시스템 측면: 벤처캐피탈과의 지원 관계	◎	-	-

⇓

기업가적 조직자본(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

스템 범주별 특성들은 개념적으로 슘페터가 정의한 앙트라프러뉴십의 정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16] 선행연구에서 벤처기업을 기업가적 기업(entrepreneurial firm) 또는 기업가(entrepreneur)라고 지칭한다는 점은 벤처기업이 기본적으로 앙트라프러뉴십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볼 때에도 Venture는 Enterprise 또는 Entrepreneur와 동의어로 다룬다. Webster 사전에 따르면 벤처(venture)는 '기회(chance) 또는 위험(danger)에 연관(involving)하는 것', '위험성을 내포한 기업(an enterprise fraught with danger)', 불확실한 결과물을 취하는 행동(an undertaking of uncertain outcome), 모험을 내포한 시도(attempt fraught with peril and jeopardy)'를 말한다. Entrepreneur의 개념에도 위험감수(risk-taking)라는 위험성을 내포한다(Jennings, 1994).

사회·심리적 하위시스템의 특성 키워드로 창업자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휘라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개념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벤처기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창업자 개인적인 기업가정신만을 가지고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속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선행연구들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시스템 전체적인 구성(configuration)개념

16) Schumpeter(1934)의 '신제품, 신서비스, 신원재료 공급원, 신생산방법, 신시장, 신조직 형태 등 조직 또는 기업가가 새로운 조합을 수행하는 과정, 그 본질상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라는 앙트라프러뉴십의 정의 속에는 본 연구가 내용분석 및 조직시스템 관점에서 재조명한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앙트라프러뉴십의 개념에 대해서는 Schumpeter이외에도 '불확실성 인내, 생산적 자원의 조정, 혁신의 도입과 자본의 공급(Hoselitz, 1952)', '이윤지향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개발하려는 목적적인 활동(Cole, 1959)', '시장에서 중개기회를 포착하는 과정(Kirzner, 1975),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Kao, 1995)', '신조직의 창조과정(Gartner, 1985)', '새로운 성장기업을 구축하는 과정(McMillan and Long, 199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뛰어 넘는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Stvenson and Jarillo, 1990)', 등 다양한데 이들에서도 벤처기업 하위경영시스템의 키워드들과 일치되는 면들을 찾을 수 있다.

으로 볼 때, 전략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 관리관행적인 측면, 대외적 조직간 관계 측면이나 산업시장의 성격 측면 등에서도 기업가적인 특성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자 개인 차원 이상의 벤처기업 경영시스템의 투입-변환-산출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신제품 전략, 혁신의 추구, 활발한 연구개발, 신흥시장의 창출, 고 성과 산출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사개념으로 앙트라프러뉴십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Lumpkin & Dess, 1996), 또는 기업앙트라프러뉴십(corporate entrepreneurship)(Zahra, 1993)이라는 개념을 참조해 볼 수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 또는 기업앙트라프러뉴십은 본래 기존 기업에서의 기업가적인 조직운영방식이나 경영스타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벤처기업 경영시스템 역시 조직시스템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신생기업인 벤처기업의 조직시스템의 운영방식이나 경영스타일을 정의하는데 원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이 시스템적으로 기업가적 변환과정을 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해 내며, 그것을 다시 투입요소로 재투입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경쟁전략론이나 자원기초이론에서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의 개념 선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벤처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기업가적 자본 또는 기업가적 전략적 자산이라는 개념적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략적 자산으로서 기업가적 조직자본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라는 사회·심리적 하위시스템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다른 하위시스템들 역시 기업가적 특성을 동시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전체적인 구성체(configuration)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가적 활동과정과 결과를 조직시스템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벤처기업을 기업가적 조직자본(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을 창출하고 축적하며 재창출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생기업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1차적인 요건이며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앙트라프러뉴십을 수행하는 조직체라는 점에 있으며, 하위시스템별 구체적인 특성들 역시 앙트라프러뉴십 관점을 구성하면서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2차적 조작적 정의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관점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겠지만 시스템관점과 Schumpeter의 앙트라프러뉴십 정의를 결합해 볼 때, 기업가적 조직자본은 신시장기회를 포착하여 기업가적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사회심리적·경제기술적 생산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적 조직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과제

4.1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적·실무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핵심적이고 본질적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내용분석을 행했다.

문헌검토 결과 벤처기업에 관한 정의들은 벤처기업의 특징을 직접 다루는 연구와 벤처캐피탈의 정의속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연구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 앙트라프러뉴십의 개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는 경우와 신기술이나 소규모 또는 신생성과 같은 조직 시스템상의 일부 특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후자는 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이라는 점과 투자대상의 위험성과 기대성과를 부각시켜 고성장 기업, 고위험 또는 고성과 창출사업이라는 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개념특징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앙트라프러뉴십 개념을 중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창업자 개인적인 특징의 하나로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또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보이며, 모범적인 존재로 미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연구문헌의 정의방식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인다. 실무 측의 정의를 보더라도 일본의 실무 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관한 정의가 학술적인 면에서나 실무적인 면에서 일본의 실무측이나 학술연구 측의 벤처기업 정의와 특성을 모방한 흔적이 있다.

조직시스템 관점과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해 선행연구문헌에서 제시된 벤처기업 정의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내용들은 조직시스템의 하위시스템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의 특징은 신생산업, 신흥시장(상위시스템 측면), 기업가정신(사회 심리적 시스템 측면), 신기술의 상업화 및 신시장 개척의 추구(목표가치·전략 하위시스템 측면), 중소규모, 신생 창업단계, 독자성(구조적 하위시스템 측면), 혁신지향, 위험감수(관리적 하위 시스템 측면), 벤처캐피탈과의 지원관계(개방시스템 측면), 고성과 고성장(산출 측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벤처기업의 조직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의 기업가적 조직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위시스템의 특성들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이므로, 각각의 하위시스템 요소들 중 한 두 가지만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전체적이고도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 이를 테면 구조적 하위 시스템 측면의 연령이나 소규모, 관리적 하위 시스템 측면의 혁신지향적 이라는 측면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므로 벤처기업만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위시스템의 특성들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개념으로 본 연구는 '기업가적 조직자본(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을 유추하였다. '기업가적 조직자본'은 창업자 개인 기업가가 발휘하는 기업가정신적 행동과 태도를 포함하며,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시장 창출 등의 전략적 지향성 및 조직경영방식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조직 및 사회경제적 앙트라프러뉴십 상황맥락을 말해 주는 개념이다. 벤처기업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요건은 앙트라프러뉴십을 창업자 개인과 조직시스템 전체차원에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신시장 질서를 창조하는 기업가적 성과를 산출해 내는가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원동력과 성과 산출물을 포괄할 수 개념으로 벤처기업의 전략적·문화적 자산으로서 기업가적 조직자본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종래 선행연구문헌들에서 제시된 벤처기업의 특성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여 벤처기

업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조직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각 하위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체(configuration)개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입각하여 벤처기업을 총체적으로 정의 내린다면 '기업가적 조직자본을 창출·축적하는 신생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벤처기업은 신기술로 최초의 시도를 해 보거나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흥시장이 갖는 미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초래되는 실패의 위험이 내포된 사업아이템을 상업화함으로써 경제사회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지향하는 기업가적 전략(entrepreneurial strategy)을 추구하는 신생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경영방식을 조직시스템의 변환활동과정에서 행하고 산출물 역시 기업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벤처기업이 갖추어야할 1차적이며 필수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이며, 신생창업단계이며, 벤처캐피탈과의 지원관계를 맺는 등의 특성들은 벤처기업의 유형(종류)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명백하게 한정시킬 수 있는 2차적이며, 부차적인 조건들(또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하위 시스템의 특성들은 1차적 요건과 결합됨으로써 벤처기업의 범위와 대상을 명료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 장비산업,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테크 산업 벤처기업이라고 하거나, 전략측면에서 볼 때, 신시장 창출형인가 기존시장 대체형의 벤처기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대체전략을 추구하는 벤처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벤처들은 수입시장 대체추구형 벤처로 유형화할 수 있다.

4.2 토론 및 과제

벤처기업을 '기업가적 조직자본을 창출·축적하는 신생기업체' 라고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후과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가적 조직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정지표의 개발문제가 중요한 향후과제이다. 벤처기업이 창업자뿐 아니라 조직시스템 전체적으로 앙트라프러뉴십을 실천하고 있는지,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전략적 지향성과 조직행태,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앙트라프러뉴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직차원에서의 조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17]

이와 관련해 최근 앙트라프러뉴십 이론 분야에서는 신생기업 개인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의 개념이 아닌 기존기업에서의 조직차원에서 기업가적 경영방식 또는 기업가적 조직지향성(Entrepreneurial Management, Entrepreneurial orientaion)이라는 개념이 연구되어오고 있다(Covin & Slevin, 1991; 1986; Lumpkin & Dess, 1996). 이를 기업앙트라프러뉴십(corporate entrepreneurship)이라고도 하는데, 이의 개념을 일부 원용해 기업가적 조직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측정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과로서 기업가적 성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문헌들에서는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고성과 또는 고수익, 고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17) 벤처기업의 본질을 Entrepreneurship으로 정의하고, Entrepreneurship 관점에서 벤처현상을 연구한다면, Entrepreneurship의 개념에 내포된 위험감수성의 문제, 혁신성의 문제 등을 각 연구관점별로 비교 하여 심층 연구해야 할 것이다(장수덕, 2002 한국전략경영학회 하계 발표 코멘트).

이것은 다분히 벤처캐피탈이라는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벤처성과를 앙트라프러뉴십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면, 기업가적 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는 산업표준 선점과 같은 신시장질서의 창출, 신시장을 창출·개척하거나 기존시장을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istruction)라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나 창출할 것인지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존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지, 신 경제 창출 및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이른바 창조적 파괴의 정도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이론이나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신생기업체의 의미와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기준과 지표가 새로운 시장인지, 신생산업인지, 신생기업인지, 신제품인지, 신기술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문제는 기업가적 조직자본을 창출하고 축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신생창업 기업으로 시작된 벤처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수준이 되어도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이나 휴맥스 등이 신생창업단계 및 중소기업단계를 넘어 대규모 기업단계로 성장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벤처에 관한 향후 학술적 연구방향과 실무적 정책수립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연구시각(multiple perspective)과 이론을 적용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Jennings, 1994)는 점이다. 벤처기업 정의 및 특징들이 1차적인 요건으로 기업가정신을 추구한다는 점은 벤처기업이 앙트라프러뉴십 이론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며, 2차적인 요건으로 조직의 하위시스템별로 나누어진다는 점은 벤처기업의 특성이 하위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을 심도 깊이 연구하고 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앙트라프러뉴십 이론에 입각하되 조직이론, 전략이론, 조직행동이론, 인적자원관리론, 마케팅 이론 등과 같은 경영학의 제 관련 이론 및 관점을 접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Jennings, 1994; Low and McMillan, 1988; Zahra, 1993; 이춘우, 1998; 1999).

벤처기업 경영현상을 설명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앙트라프러뉴십 이론과 조직이론, 전략이론 등 경영학의 제반이론들간을 결합시키는 연구들은 벤처기업의 경영이론을 형성하고 구축하는 한가지 중심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앙트라프러뉴십의 과정이 흩어져 있는 가시적·비가시적 자원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활동(Jones *et al.*, 1995)이라는 점에서 자원에 관한 이론들과 앙트라프러뉴십 이론을 결합한 이론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앙트라프러뉴십 활동이 제품·서비스의 혁신 및 시장혁신, 고성과 산출을 촉진하며, 지속적인 조직성장 및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Knight, 1997; Bruno & Tybjee, 1982 참조), 경쟁전략론과 앙트라프러뉴십 이론간의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이론 및 관점이 벤처기업의 경영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특수성에 의해 기존 이론을 수정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이론들간의 결합을 시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벤처기업이 신규사업을 창업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신규사업 조직의 창업과정(start-up process) 및 관련현상을 규명하는 연구와 이론개발이 벤처기업 고유의 특색 있는 연구주제이자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때 신규사업의 창출과정은 기존기업이 주체가 되어 신규사업 진입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한 연구는 기존기업의 사내벤처창출 전략과정(corporate venturing)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후자는 조직성장 단계론적 관점에서 창업의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과정 및 단계를 설명·예측할 수 있는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벤처기업이 신생조직의 창출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벤처기업은 조직이 생성분화되는 초기단계이므로 개인차원 및 집단차원의 변수들이 조직차원의 변수들만큼 벤처성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수준의 이론 및 변수들과 집단수준의 이론 및 변수들, 그리고 조직수준의 이론 및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교차수준적 연구(cross level research)가 가능하며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무 측에서 내리고 있는 벤처기업의 정의 및 특징들은 학문적 연구문헌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면들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기업가정신의 발휘나 기업가적 전략추구성향을 요건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벤처기업의 선정 기준은 국내외의 학술적 연구문헌 및 외국의 실무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특성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정부정책적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벤처기업의 경영자 측면의 기업가정신의 발휘의 특징이나 경영전략 측면의 신시장 창출 전략의(주관적) 의도를 실무 측 정의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출이나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맹아단계의 벤처(기업)가 배제된다거나 벤처가 아닌 벤처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실무 정책 수립의 방향 및 내용에 있어서도 앙트라프러뉴십의 이론관점에서 재정비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실무 측의 정의들에서는 벤처기업의 핵심적인 역할과 특징이 신시장 창출의도의 전략과 기업가적 행태라는 벤처기업의 핵심적인 측면을 매우 간과하였다. 실무 측에서 기업가 측면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인 수량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한 주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벤처기업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수 (1987),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권기대·이상환 (2003), "벤처기업-대기업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의존성, 권력, 신뢰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6권 제2호, pp.53-76.

고중선 (1991), "벤쳐비지니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곽세영·위한종 (2001), "한국 벤처캐피탈의 투자성과,"

벤처경영연구, 제4권 제1호, pp.63-81.

김갑·한상설 (2003),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6권 제1호, pp.3-24.

김갑수 (1982), 한국에 있어서 기술지향적 기업의 생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웅 (1996), **방법론 강의**(박영사).

김병균 (2001), **벤처산업의 미래전략**, (21세기 북스).

김영배·하성욱 (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벤처인증기업 전수조사연구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1호, pp.3-38.

김영우 (1983),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방향," **기술관리**, 통권 76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pp. 21-25.

김홍경 (1990), 모험기업의 유형별 전략과 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나중덕 (1984), "한국형 모험기업의 성패요인분석-연구소 신기술기업화 회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나중덕 (1994), 모험자본회사의 유형별 투자행태 및 성과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노현섭·최상렬, (2000), "우량·비우량 벤처기업의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경영연구** 4(2), pp.31-60.

박경민 (1997), **연구보고서 97-16 LG경제연구원**, 1997. 7.

박경렬 (1997),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형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 19권 제 2호, pp. 251-271.

박민규 (1992), 국내 신생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의 진입전략에 관한 상황적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박상문 (1997), 국내 모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배준우·배종태 (2003), "우리나라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국제화 과정과 전략," **벤처경영연구**, 제6권 제1호, pp.41-74.

백경래 (1996), "신생모험기업의 전략유형 및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 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서정해·이춘우·이장우 (2003), "벤처기업의 개념에 관한 벤처경영자의 인식," **전략경영연구**, 제6권 제2호, pp.1-27.

성소미 (2001), **한국의 벤처: 평가와 전망**, (비봉출판사).

손병문 (1984), "벤처비지니스와 벤처캐피탈," **기술이전**, 제 5권 제 2호, pp. 11-18.

송광선 (2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1호, pp.73-103.

신재정·서정우·정용화 (1994), "모험자본 지원자금의 유형별 효과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 16권 제 1호, pp. 23-43.

신유근 (1996) **현대경영학: 원론적 접근**(다산출판사).

윤주섭 (1987), "벤처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 1987. 2. 보고서 (한국기술개발(주)).

이광근 (1999) 벤처기업의 독자능력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주) 호리바제작소의 사례분석, **벤처경영연구**, 제2권 제2호, pp.91-118.

이만기 (1988), **경제연구** 제9권 제1호 .

이장우 (1997), **벤처경영**(매일경제신문사).

이장우·장수덕 (1998),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69-96.

이장우·이현숙 (2000),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2호, pp.3-31.

이종일 (1998), "창업보육과 신기술 벤처기업 활성화,"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181-199.

이진주 (1985), "연구개발, 모험기업 및 기업내 창설," **기술관리**, 3, pp.42-47.

이진주 (1986), "신기술개발과 모험자본의 역할," **기술관리**, 32, pp.40-50.

이진주·한종희 (1993), "모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회사의 관리/지원활동 효과에 관한 상황적 분석," **경영학연구**, 제 23권 제 3호, pp. 21-60.

이윤보 (1999), "일본벤처기업의 현황과 정책," **벤처경영연구**, 제2권 제1호, pp.135-167.

이춘우 (1998), "앙트라프러뉴십 연구의 개관과 핵심연구주제의 설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

영연구소 working paper 제4호.

이춘우 (1999) "조직앙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춘우 (2001), "벤처기업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산업과 경영**, 제13권 제2호,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pp. 1-30.

장연주 (1997), "창업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현국 (1999),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과정: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조형래 (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 (1991), 한국 벤처산업의 역할분석과 그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홍성도(1998),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清成忠男 (1998), 일본의 벤처비지니스, 중소기업학회 2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중소기업학회.

Almedia, J. G. and J. M. Bloodgood (1996), "Internationalization of New Ventures: Implications of the Value Chai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11-225.

Bachher, J. S. and P. D. Guild (1996), "Financing Early Stage Technology Based Companies: Investment Criteria Used by Investor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363-376.

Barry, C. B., C. J. Muscarella, J. Peavy and M. R. Vetsuypens, (1990),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the Creation of Public Companies: Evidence from the Going Public Proc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7, pp.447-471.

Bollinger, L., Hope, K. and J. M. Utterbak (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 1-14.

Boocock, G. and Woods, M. (1997), "The evaluation criteria used by venture capitalists: evidence from a UK venture fund,"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997 16(1), pp. 36-58.

Bruno, A. V. & Tyebjee (1982), "The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in Kent, C. A., Sexton, D. L. & Vesper, K. H.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 288-307.

Bruton, G. D. and Rubanik, Y. (2002), "Resources of the Firm, Russian High-technology Startups and Firm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6), pp.689-708.

Bygrave, W. D. (1987), "Syndicated Investments by Venture Capital Firms: A Networking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pp.139-154.

Bygrave, W. D. & Timmons, J. A. (1992), "Venture Capital at the Crossroad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Mass, US.

Cable, D. M & Shane, S. (1997), "A Prisoner's Dilemma Approach to Entrepreneur-Venture Capitalist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2, No. 1, pp. 142-177.

Carland, J. W., Hoy, F. & Carland, J. A. (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9, pp. 354-359.

Chrisman, J. J., A. B. Bauerschmidt and Hofer C. W. (1999)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 pp.5-29.

Clarysse, B. and Moray, N. (2004), "A Process Study of Entrepreneurial Team Formation: the Case of Research-based Spin-off,"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1), pp.55-79.

Cooper, A. C. (1971), *The Founding of Technologically-based Firms. Milwaukee, WI: The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Cooper, A. C. (1981), "*Strategic Management:* New Venture and Small Business," *Long Range Planning*, Vol. 14, No. 5, pp. 39-42.

Covin, J. & Slevin, D. P.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in B. A. Kirchoff, W. A. Long, W. E. McMillan, K. H. Vesper, & W. E. Wetzel (Eds.) *Frontier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pp. 628-639.

Covin, J. G. & Slevin, D. P.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1, pp. 7-24.

Davila, A. Foster, G. and Gupta, M. (2003), "Venture Capital Financing and the Growth of Startup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6), pp.689-708.

Deeds, D. L., Decarolis, D & Coombs, J. (1991), "Dynamic Capabilities and New Product Development in High Technology Ventures: An Empirical Analysis of New Biotechnology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pp. 211-229.

Dollinger, M. J. (1995),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Boston: Irwin).

Dominguez, J. R. (1974), *Venture Capital*, (Lexington Book: Massachusetts).

Franquesa, J. and A. C. Cooper (1996), "A Study of the Implications of Different Managerial Styles for New Venture Performanc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182-196.

Glaser, B. and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Gladstone, D. (1988), *Venture Capital Handbook: A enterpreneur's guide to obtaining capital to start a business but a business or expand an exisiting busines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Hisrich, I. and Peters, T. (1995), *Entrepreneurship: Starting, developing and Managing a new Enterprise* (IRWIN: Chicago).

Insch, G. E., Moore, J. E. and Murphy, L. D. (1997), "Content Analysis in Leadership Research: Examples, Procedur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Use," *Leadership Quarterly*, 2(1), pp.1-25.

Jennings, D. F. (1994), *Multiple Perspectives of Entrepreneurship: Text, Readings and Cases*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lishing Co.).

Jones, F. F. , Morris, M. H. & Rockmore, W. (1995), "HR Practice that Promote Entrepreneurship," *HR Magazine*, Vol. 40, No. 5, pp. 86-91.

Kast, F. E. and Rosenweigh, J. E. (1979),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 systems and contingency* (New York: McGraw-Hill Book).

Kazanjian, R. K. (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s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57-279.

Kazanjian, R. K. and R. Drazin (1990), "A Stage-

Contingent Model of Design and Growth for Technology Based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pp.137-150.

Kerin, R., Varadarajan, R. and Peterson, R. (1992), "First-Mover Advantage: A Synthesis,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Proposition," *Journal of Marketing*, 56, pp.33-52.

Kippendorff, K.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New Bury Park, CA: Sage).

Knight, G. A. (1997), "Cross-Cultur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o Measure Firm Entrepreneurial Orient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2, pp. 213-225.
Liles, P. (1974), "Sustaining the Venture Capital Firm," *Management Analysis Center Research Study*, Homewood(Ill.).

Light, R. J (1971), "Measures of response agreement for qualitative data: Some generalizations and alternatives," *Psychological Bulletin*, 76, pp.365-377.

Lorenz, T. (1989), *Venture Capital Today: A Principal Guide to the Venture Capital Market*, 2nd ed. (New York: Woodhead-Faulkner).

Low, M. B. and I. C. McMillan (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 *Journal of Management*, 14(2), pp.19-151.

Lumpkin, G. T. &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 No. 1, pp.135-172.

Maier, J. B. and Walker, D. A. (1987), "The Role of Venture Capital in Finance Small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 pp.207-214.

McDougall, P. and R. B. Robinson, JR. (1990), "New Venture Strategies: An Empirical Identification of Eight 'Archetypes' of Competitive Strategies for En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 pp. 447-467.

Miles, M. B. and Huberman, M. A. (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of New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Oviatt, B. M., & McDougall, P. P. (1994), "Global start-ups: Entrepreneurs on a worldwide st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9(2): 30-43.

Preece, S. B., Miles, G. and Baetz, M. C. (1999),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intensity and global diversity of early-stage technology-based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3), pp.259-281.

Pinchot, G. (1985), *Entrapreneuring* (New York: Harper & Row).

Robinson, R.. B. and J. A. Pearce II (1986), "Product Life-Cycle Consideration and the Nature of Strategic Activities in Entrepreneurial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207-224.

Sandberg, W. R. and C. W. Hofer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5-28.

Sapienza, H. J. & Gupta, A. K. (1994), "Impact of Agency Risks and Task Uncertainty on Venture Capitalist - CEO Inter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7, No. 6, pp. 1618-1633.

Schoonhoven, C. B., Eisenhardt, K. M. & Lyman, K. (1990), " Speeding Products in Market: Waiting Time to First Product Introducing

in New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No. 1, pp. 177-208.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halman, W. A. (1990), "The Structure and Government of Venture Capital Organiz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7, pp.473-521.

Shrader, R. C. & Simon, M. (1997), "Corporate Versus Independent New Ventures: Resource, Strategy and Performance Differen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2, pp. 47-66.

Shepherd, D. A. and Crouch, A. (1995), "On the concept of new venture," *Internationaliz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 Conference* 1995.

Stearns, T. M. (1996), "Strategic Alliances and Performance of High Technology New Firm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68-281.

Stinchcombe, A. L. (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In James G. March(Ed.), *Handbook of Organizations*, (Chicago: Rand Mcnally), pp. 142-193.

Stuart, R. & Abeti, P. A. (1987), "Start-up ventures: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pp. 215-230.

Timmons, J. A. & Bygrave, W. D. (1986), "Venture Capital's Role in Financing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 No. 2, Summer, pp. 161-176.

Tsai, W. M.-H., MacMillan, I. C. and M. B. Low (1991), "Effects of Strategy and Environment on Corporate Venture Success in Industrial Marke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9-28.

Utterback, J. M. (1979), "The Dynamic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in C. T. Hill and J. M. Utterback(Eds.),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a Dynamic Economy* (NY: Pergamon Press), pp. 40-65.

Vesper, K. H. (1984), New Venture Strateg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West III, G. P. and G. D. Meyer (1996), "Managing Growth Through Strategic Changing in New Ventur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524-538.

Zahra, S. A. (1993),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A Critique and Extens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Summer, pp. 5-21.

Zahra, S. A., D. Ireland and M. A. Hitt (2000), "International Expansion by New Venture firms: International Diversity, Mode of Market Entry, Technological Learning,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pp. 925-947.

A Study on the Concept and Essential of Business Venture

Choonwoo L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business venture with literature review and execute content analysis with organizational system model.

In the prior literatures, a variety of elements are used to indicate a concept of business venture, but it is ambiguous which one is essential to define business venture. Some define venture firm as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firm', entrepreneurial venture', and others do it as 'new technology-based firm', 'start-up company', 'high technology business', 'venture capital-backed company', etc.. A various definitions make some confusion to academic and practical endeavor for venture development.

This study executes literature-review on the concepts in prior academic/practical studies, and introduces the terminology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 as strategic systemic assets of business ventures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organizational system model. Therefore, the concept of business venture could be defined as "A new firm creating and accumulating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 can be defined as interactional systemic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o facilitate developing new combinations of social and psychological-economic technical production element in order to mak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with new market opportunities.

Key words: Concepts of Business Ventur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capital

*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